

장마 오는데...섬진강 물난리후 1년간 바뀐 게 없다

수해 원인 아직도 조사중
홍수통제소 복원 유야무야
환경정 신설 약속은 백지화
통제업무 직원 4명 그대로
“우리 소관 아냐”...전남도 뒷집

지난해 8월 사상 초유의 ‘섬진강 물난리’ 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폭발 직전의 민심 수습과 구조적 재발 방지를 위해 섬진강 홍수통제소 복원, 조속한 홍수 원인 조사 및 주민 피해 배·보상, 댐관리 방안 개선 등을 전남도와 수해지역민에게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해지역에서는 “정부가 제구실을 못 하면 전남도를 비롯한 지방행정기관이 주민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데 뒷집만 지고 있다”는 원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전남도와 환경부, 구례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7-8일 섬진강 물난리 이후 조명래 당시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수해지역을 잇따라 찾아 조속한 수해 원인 규명과 피해 배·보상, 구조적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당시 조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댐관리 방안 개선에 나서고, 지난 2005년 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에 통폐합된 섬진강홍수통제소를 최우선으로 복원, 홍수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섬진강홍수통제소 부재, 영산강홍수통제소 인력 부족 등 홍수 통제 기능이 취약한 탓에 수문 개방 등을 맡는 댐관리자 ‘한국수자원관리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해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이틀에 걸쳐 600mm에 육박한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던 시기, 영산강-섬진강-탐진강-동진강 등 호남권 소재 9개 댐 방류 여부 등 홍수통제 업무는 영산강홍수통제소 통제 업무 직원 단 4명이 떠맡고 있었다.

그러나 주무관리가 약속한 섬진강홍수통제소 복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만 진행 중으로, 복원 여부는 물론 시기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

악됐다. 영산강홍수통제소 홍수 통제업무 직원도 4명으로 변화가 없다. 당시 수해에 몰렸던 환경부는 지역주민, 지역 정치권 등이 “5대 강 중 유일하게 섬진강에만 없다”며 섬진강유역환경정신설을 요구하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현재는 백지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해 원인 조사, 배·보상, 댐관리 방안 개선책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지지부진하다. 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주민대표 참여 여부 등 조사위 구성을 놓고 지자체, 수해지역민과 마찰을 빚다 지난해 12월에야 조사위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확정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해 원인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애초 6월 27일까지 용역 기관을 통해 조사한 피해 규모, 수해 원인 등을 발표한다고 했으나 주민 대표 등에게 공문을 보내 “발표 시기를 한 달 늦춘다”고 최근 통지했다.

김장승 구례군 수해 피해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은 “정부와 정치권은 모두 공정한 조사를 거쳐 투명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배상을 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1년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가 이제라도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지자체도 지역 민심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섬진강홍수통제소 복원을 위한 절차는 진행 중이며, 수해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역시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지지부진한 정부의 후속 조치 이행을 두고 수해지역에선 전남도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정치권 등과 협조해 지역 민심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남도 공직자들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의 처분만 기다리며 뒷집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 환경산림국, 물환경과 등 주무 국·과 간부들은 이날 지난여름 수해 후속 조치를 묻는 말에 “현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환경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기밀사항이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 협의회에서도 물난리 후속 조치를 건의하거나 촉구한 도정 공직자는 없었다.

한편, 지난해 8월 초 섬진강 물난리로 전남에서는 11명이 숨졌다. 재산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민간-공공부무를 합쳐 약 1조원으로 추산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지역 섬 주민들이 10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1000원 여객선 요금제’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전남도내 1320개의 여객선 운항 구간 중 운임 8340원 미만인 932개 구간에 적용되며, 섬 주민 5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1000원 여객선 시대’ 열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
섬지역 주민 5만여명 혜택

전남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섬 주민 이용이 많은 932개 전체 생활구간에 1000원 여객선 요금제를 시행한다. 올 하반기 전산발권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섬 주민을 위한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 민선7기 들어 1000원 여객선 요금제로 시행하는 결실을 보게 됐다. 1000원 여객선 요금제

는 총 1320개의 여객선 운항구간 중 운임 8340원 미만인 932개 생활 구간에 연간 지방비 23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섬 주민 5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7일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연합회와 간담회에서 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 건의 사항을 반영해 932개 생활구간에 시행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또 섬 주민이 육지 대중교통 수준으로 혜택을 누리도록 거문도, 흥도 등 8340원 이상 388개 구간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전 구간 1000원 여객선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여객선 운임 8340원 미만은 운임의 50%, 8340원 이상-3만원 이하는 5000원, 3만원 초과 ~ 5만원 이하는 6000원, 5만 원 초과 운임 구간은 7000원을 섬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섬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국비 지원을 건의해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섬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확대해 전남을 가고 싶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난해 8월 초 섬진강 홍수가 휩쓸고 간 구례 5일시장에서 주민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민주 대선후보 일정대로 9월초 선출 될 듯 최고위 결론 못내...25일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초 일정대로 대선일 180일 전인 9월초에 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경선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5일 대선경선기획단 보고를 받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대선경선기획단은 현행 당헌을 기초로 기획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경선이 연기되지 않고 당초 일정대로 경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가 끝난 뒤 “의원총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지도부가 숙의한 결과, 현행 당헌의 대선 180일 전

선출을 기본으로 해서 대선경선기획단이 선거일정을 포함한 기획안을 25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뒤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들은 경선 연기 여부에 대해 별도의 표결 절차를 갖지 않고 각자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또 경선 일정과 별개로, 민주당은 2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중앙당선관위 설치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 88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선거일 전 180일까지, 즉 9월 초에 선출해야 하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선 연기를 주장해왔던 대권 주자 진영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내 진동은 물론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촉촉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레그리스티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리움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레그리스티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